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손다니엘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믿음의 기도 (막 9: 14-29)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갈라디아서 5:16-26)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에 대해 본문은 15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최악은 성적인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간음, 혼전관계, 동성연애, 포르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내 이익에 초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은근히 험담함으로, 부족함과 실수를 덮기 보다는 드러내고 알림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육체의 욕심에서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21 절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인 9 가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조급함이 아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 부족한 모습에 대해 오래 참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며 감정과 말을 절제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려면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해 칼처럼 끊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매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결정,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원합니다. 이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일에 제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묻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려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교회소식

-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2. 연합 청소년 예배 - 오늘 청소년 예배는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드립니다.
- 3. 추수감사예배 - 11 월 19 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한영예배로 연합하여 드립니다.
- 4. 주일 중보기도 - 주일오전 10 시부터 예배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모임이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5. 인선 & 예산 위원 모임 - 예배 후에 인선 & 예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 6. 헌장개정 초안 - 헌장 개정 초안을 11 월 19 일에 배치합니다.
11 월 26 일 예배 후에 헌장 개정 설명회가 있습니다.
- 7. 중보기도 - 2024 인선과 예산, 헌장 개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12	11/19	11/26	12/03
대표기도	손다니엘	유경주	조정욱	이강선
헌화성도	정병철	심연순/ Susan Choi	정명희	이진수
봉사당번	소망구역	소망구역	각전도회	사랑구역

행사 및 모임

11 월	추수감사예배	11 월 19 일(주일)
------	--------	---------------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5,651.00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정병철	510-415-4156	정주환(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Malaysia)
소망구역	유경주	510-634-9374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 진정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 쉽게 떠오르는 것들은 건강, 가족, 교회, 친구들 ...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구들과 교회당에서 방석으로 싸움도 하고, 교회에 나오면 빵도 주고 우유 같은 간식도 받아 먹었습니다. 새로운 노래와 게임을 배우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거나 성경구절을 매주 암송하면 공책, 연필 등 상품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커서는 교회에 탁구대도 있고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여학생들과 게임도 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시간을 통해 수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들을 때 마다 항상 의문과 질문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지옥과 천국이 정말 있는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걸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웬지 창피한 느낌에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해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하는 것이 웬지 금기된,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음에 있던 질문들이 하나 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저기 흩어졌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영적 죽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받은 축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을 저만이 아닌 우리 헤이워드 모든 성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에 감사하며 그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